

5천년의 온돌방, 흙 침대로 재현하다.

株式會社 흙

주식회사 흙은 1991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의 황토를 원료로 흙침대개발을 시작하여 지난 7년간 오로지 흙침대만을 만들면서 100여명의 종업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IMF불황을 이겨내는 흙침대 제조 수출업체입니다.



업계 최고라는 명성에 걸맞게 매출 규모는 94년 4억5천만원, 95년 14억4천만원, 96년 40억 5천9백만원, 97년 65억 8천만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 일환으로 한국발명진흥회가 추천하여 독일 IENA97신기

숭발명진흥회에서 주택난방부문 은상을 수상했고 독일의 전기매트와 비교 전자파 실험에서 전자파 차단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았고 1998년 9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흙침대를 중국 시장에 전시하여 중앙관리국에서 각처 병원에 추천하여 수익사업으로 선택하겠다고 하였고 매년 각 국 전시회에 참가 중이다.

주식회사 흙은 흙침대의 기술을 그대로 전수받아 황토를 구운 세라믹과 제올라이트 등으로 만든 흙표 흙 매트를 생산하는 세라믹 산업을 설립하여 흙표 흙침대가 가격이 높아 특정인에게 판매되는 것에 반해서 흙매트를 일반 서민층에 보급하고 있다.

흙표 흙 침대는 종래의 침대를 사용함으로써 수면시에 허리에 주는 부담이커 허리통증 및 심지어 허리 디스크 등의 질환을 유발시켜 현대인들의 성인병을 증가시키는 폐단을 보완하여 옛 조상들이 살았던 초가집이나 토담집의 온돌방을 그대로 재현하여 자고 일어나면 하루의 피로가 깨끗이 풀릴 뿐만 아니라 신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건강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4월 한국 소비자연맹이 “국내 생산되는 매트 중 흙표 흙 침대만이 원적외선이 광고한대로(90%)나오고 유해전자파를 완전히 차단하였다”고 판정발표하여 TV방송에 보도되었으며 국립기술품질원 산하 한국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Q마크,EMI,HQ마크(유해전자장으로부터 0cm화) 취득은 물론 흙침대로서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발명특허를 득하였고 미국발명특허도 득하여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F.D.A산하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유해독성검사」에서 무해인정을 받았다. 유해전자파 규정이 제일 까다로운 스웨덴 안전 기준치 3MG(미리가우스)보다 더 적은 1MG도 나오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뉴질랜드, 스페인 등 7개국에 수출했고 흙침대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